

인공지능 기업, 광주밸리 진출 가속도

시, 헬스케어·에너지·데이터 등 10개사 협약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광주시가 더욱 탄탄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걸음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데이터, 에너지, 응용분야의 10개 기업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02-111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별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김민규 감성텍 대표이사, 이승진 비티비엘 대표이사, 박철구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대표이사, 임종화 씨노우 대표이사, 기승도 에니트 대표이사, 등 10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각 기업은 ▲광주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위해 인공

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인공지능 분야 선두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상상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100번째 업무협약 이후 첫 업무협약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문을 두드리 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헬스케어에너지데이터응용분야 10개사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02-111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18기록관, ‘금남로에 있었다’ 특별전

4·19혁명부터 6월 항쟁까지 사진기록물 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0일부터 11월28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기획전 ‘금남로에 있었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의향 광주와 민주의 거리 ‘금남로’라는 공간적 기록에 포커스를 맞췄다.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3·15의거와 4·19민주혁명, 6월 항쟁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전시실 내부는 1980년 5월 당시의 금남로 1가에서부터 5가에 있었던 주요 건물 모형의 제작에 공간을 재현했다. 전시 주요내용은 3·15에서 4·19까지 ‘국(國) 민주주의의 장승’ 데모에서 광주고 등 지역 고등학생들의 4

·19학생시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각 구간별 사진들로 구성되며 1987년 6월 항쟁 금남로 대규모 군중 집회의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들로 구성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일기 중 금남로 상황을 기록한 부분과 해외신문, 투사회보, 기자들의 금남로 상황 메모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도 선보인다. 특히, 기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치 센서, 디지털영상,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첨단장비와 아날로그적 감성이 결합되도록 기록물 복본을 제작해 전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황애란 기자

“트라우마센터 근거법 제정 속도내야”

이 시장, 간부회의서 주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과 센터 설립에 속도는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라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18 관련 3개 법안(5·

18국제범죄특별법, 진상규명특별법, 유공자예우법) 제정에 더해 올해는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법률을 제정해 정의로운 의향 광주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설립의 근거법들이 제정되지 못해 조래에 근거한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행안부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달 건축설계 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과 건설사업을 위한 44억원이 반영됐다. /황애란 기자

도, 대학생 사회적경제 기업인으로 키운다

목포대 등 4개 대학 취·창업 유도 강좌 운영

전남도가 공동체 회복과 인구 소멸의 대안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을 위해 도내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인으로 육성한다. 전남도는 목포대, 전남도립대, 동신대, 조양대 등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강좌를 개설, 2학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순천대와 전남도립대에서 과목을 처음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4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강좌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이해, 창업 사례, 창업 절차와 자금조달 방안, 경영과

마케팅 전략, 외국 사례,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 이론적 개념 학습을 넘어 실제 대학생의 취·창업과 연계한 주제로 구성됐다.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창업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

회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6월 말 현재 전남에는 1,842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 고용인원은 8,080명이며, 지난해 총 연매출액은 3,697억 원에 달한다. 장정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전남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대안”이라며 “도내 유능한 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심을 두고 취·창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지스트 신임 이사장에 한문희 충남대 명예교수 선임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신임 이사장에 한문희 충남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7일 지스트에 따르면 지스트 이사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으로 한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8월까지다. 제14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가인 한 교수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받았다. 한 이사장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충남



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임수경 전 지스트 이사장은 김기선 전 총장의 해임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거론되면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지난날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나라 기자

윤봉근 국민소통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지역 현안 반영되도록 최선” 윤봉근(64)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전 광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이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한다. 윤 위원은 7일 “집권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돼 책임이 무겁다”며 “국가적 각종 정책뿐만 아니라 지



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광주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당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위원 은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전국사·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국무총리실 행정협조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기철 기자

통합 문화전당 125명·전당재단 40명

기재부 정원 승인...전당장은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재정부가 통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을 125명으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최근 통합 문화전당의 정원을 일반직 125명에 공무원 336명, 가장 문화재단 정원을 일반직 40명에 공무원 91명을 승인했다. 이 방안은 9월 중 정부 차관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확정된다. 전당장 직급은 중앙부처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결정됐다. 현 직급은 ‘전문임기제 4급’이다. 2기 문화전당은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조직·사업을 흡수·통합해 새롭게 구성되는 조직이다. 전당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 시설 운

영과 함께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제작 등을 수행한다. 현재 문화전당의 인원은 32명, 아시아문화원 80여명이지만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문체부가 전당재단의 ‘정원 내 고용승계’ 원칙을 고수할 경우 상당수가 실직하거나 문화전당에 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해 후유증이 예고된다. 정부 법인 소속이던 아시아문화원 직원이 재단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고용 승계가 되지않고 국가공무원 조직인 문화전당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공무원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때문에 당분간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연수 기자

도청간부공무원 갑질·금품수수 의혹

▶1면에서 계속
내역을 살펴보고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A 사무관에 접의 응답서를 받은 상태며 금품수수, 갑질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참여한 제작과 외주제작 수의계약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조합은 서기 2021년 3월 27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8일
순천시 매곡동 주공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청산인 대표 송순임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제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산100-1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언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전북 익산시 인근 남광장
6.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0-1 박찬갑 (010-4631-2690)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 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제로 신고
10. 기타사항: 추가 분묘개발시 본 공고에 갈음함.

2021. 9. 8
공고인 박찬갑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중,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명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 / 채권추심팀
▶지시오픈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필명관리

봄바람, 코골이를 간절어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정품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정품화환 75,000원 재사용화환 50,000원
Tel. 062-233-9961 Fax. 672-9961 동원 박백성 302-0316-64511